

“집에서 애나 보란 말에도 기죽지 않았어요”

원살 넘어 공부 시작, 평생 꿈 이뤄

94. 4. 1

MBC 농촌 드라마 <전원일기>가 방영된 지 올해로 꼭 15년째다. 판록있는 프로그램 답게 극본을 쓰는 작가도 색다른 경력을 지녔다.

윤묘희(59)씨. 조한순 씨와 함께 <전원일기>를 집필하고 있는 그는 원샷의 나이에 드라마 공부를 시작, 술한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평생 품어온 작가의 꿈을 이룬 여성이다.

“어려서부터 글 잘 쓴다는 얘긴 곧잘 들었어요. 미련은 있었지만 결혼한 후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요. 근데 사람마다 끼가 있다고 이상하게 드라마만 하면 그렇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. 어, 저건 틀렸다고 싶으면 담당 프로듀서한테 전화도 막 걸고 만약 나라면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기도 했지요.”

항상 메모지를 가까이 두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적어두는 습관은 그때부터 몸에 익은 것이다. 그리고 마침내 자녀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다 싶자 윤 씨는 본격적으로 드라마 작가 수업에 발을 들여놓았다.

“89년도인가, <방송작가협



회>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에 들어갔어요. 거기 사람들이 할머니는 집에서 애나 보시라 그러더군요. 그래도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. 처음에는 맞춤법도 다 틀리고 그것 바로잡는 데만 한참이 걸렸으니까요.”

작품 평가회가 있을 때면

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커녕 더욱 신랄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. 그래도 기죽지 않았다. 매일 자기 전 일정 시간은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썼다는 처음의 결심을 몇 년 동안 단 한번도 어기지 않는 열성

으로 습작에 매달렸다.

“그러다가 91년 <MBC 베스트극장> 극본 공모에 당선됐어요. 그 후 꾸준히 공부하고 간간히 작품도 발표하다가 93년 5월부터 <전원일기>를 쓰게 된 겁니다.”

처음에는 늙어서 웬 주책이냐고 핀잔을 주던 남편도 이제 열렬한 지원자가 돼 주고 있다. 친정아버지나 자녀들, 손자손녀들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.

“월급 빼듯한 공무원 마누라로 고생도 제법 많이 했지요.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해 힘든 줄 모르고 오손도손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어떻게 헤쳐왔나 싶어요. 참 우리나라 여성들 강합니다.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니까요. 누구든 집념만 있으면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으니 나이 먹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”

요즘 윤 씨는 24시간 오직 <전원일기> 생각 뿐이다. 눈이 많이 어두워져 걱정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펜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다.